

고창군·임실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황토 수박 · 복분자 선연

각각 10년·8년 연속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고창 복분자 선연’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선정위원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수박, 복분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은 대한민국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브랜드 중 소비자가 인정하고 선호하는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해갈 수 있도록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인터넷 소비자조사와 전문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농식품 브랜드 부문에서 ‘고창 황토배기 수박’이 10년 연속, ‘고창 복분자 선연’이 8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고창 수박과 복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고창 복분자 선연’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농산물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연은 유기질이 풍부한 황토, 서해안 해풍, 높은 일교차 등 농산물 재배의 최적 환경 속에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과실로 오랜 시간 전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황토배기 수박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복분자 선연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될 만큼 뛰어난 맛과 향산화 효과, 혈관 지질개선 등의 효능을 자랑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 수박과 복분자를 사랑해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N치즈’ 가공식품부문

3년 연속 차지

대한민국 대표 명품치즈인 ‘임실N치즈’가 ‘2016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2016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가공식품분야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1회를 맞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탁월한 브랜드를 선정해 수상하는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갖고 있으며, 군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실N치즈’는 최고등급의 신선한 원유를 활용해 고품질의 치즈와 유제품을 생산해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치즈하면 임실, 임실하면 치즈’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심민 군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임실N치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된 만큼 소비자의 높은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위해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며 “치즈를 활용한 체험관광의 대표주자로 임실군이 떠오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N치즈’가 ‘2016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가공식품분야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어 “대상 수상을 계기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통해 상호 교감하는 계기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N치즈’는 1등급 원유를 11개소의 목장형 유기농 공장에서 당일 착유, 살균, 제품 생산, 판매함으로써 가장 신선한 치즈와 유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탄생한 대한민국 1%의 명품 브랜드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개관

호랑이 라이더관·서클 영상관·곤충온실 등 갖춰

남원시는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산리자원을 활용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을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26일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백두대간의 역사·문화·생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체험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2009년 산림청 사업건의 후 2010년 기본계획, 2012년 첫삽을 뜬 후 3년 6개월만의 결실이다.

부지 3만2,967㎡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127㎡ 규모로 외관이 한반도 빼대인 백두대간 산줄기를 본떠 만든 전시관 지붕이 특색으로 관광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백두대간의 정기를 담은 시설로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느낄수 있는 ‘백두대간을 달린다’ 코너와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백두대간 산간마을’ 코너, 주천면 노치마을을 단상제를 모

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360도 서클영상으로 전달한 ‘노치와 밤이’ 코너가 주목할 만한 전시물이다.

이밖에도 곤충생태를 심화할 수 있고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곤충온실이 별관에 자리해 있다.

전시관 입장료는 성인기준 2000원, 호랑이 라이더관 1000원, 서클 영상관 2000원이다. 그러나 남원시민 전시관 입장료는 주민등록증 소지자에 한해 무료입장이다.

전시관 주변에는 축구장 1면과 점천후 육상트랙장이 있으며 오토캠핑장과 방갈로가 6월 착공예정으로 금년도 말 완공 예정이다.

전시관 안에는 다목적강당이 있어 워크숍 등 단체행사(100명)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예약 접수 중에 있다.

올해 체험프로그램은 토끼어리 만들기, 곤충표본, 목공예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초 3학년, 군청·군의회 방문

임실초등학교 3학년 학생 60여명과 담임교사는 26일 관내 주요기관 견학을 위해 임실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견학은 임실군정의 주요 업무와 내 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애郷심을 키우고 사회교과목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군의 역사와 주요관광명소 등이 담긴 영상물을 시청한 뒤, 군청의 일반조직과 부서별 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군과 행정기관에 쌓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군의 주민 편의사색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실무현장을 실제로 경험했으며, 군의회를 찾아 본회의장과 의회사무과 등의 견학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농어촌공, 금풍제서 통수식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26일 남원시 주생면 도산리에 소재한 금풍제에서 2016년 물관리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농민농사 달성을 위해 운영 대의인 및 지역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물관리현장설명회 및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통수식을 갖고 6,117ha의 수해면적에 180여일 간의 급수를 시작하였다.

남원지사는 그동안 이번 통수식을 위해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겨우내 용·배수로에 쌓인 낙엽과 오물을 치우고, 토사를 준설하는 등 만반의 사전준비를 마쳤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창군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고창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0,521건, 20억27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7%에 이르며 이는 열악한 군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은 이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차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이름 그대로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의 명칭 변경에 관한 2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부르기 좋고 남원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포함된 새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제1인 춘향 달마실 공원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건의한 춘향공원 등 5개의 명칭을 두고 1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와 춘향 달마실 공원 또는 춘향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30%~34%를 차지함으로써 남원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명칭변경에 대한 확실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를 시행치 않기로 한 것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